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과일가공품 및 유제품 *

박 유 미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1. 과일주스 시장의 변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일주스는 사람에게 이로운 식품으로 인식되었다. 오렌지주스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점심 도시락에는 매일 과일주스 한 팩이 함께 챙겨졌다. 그러나 이제 과일주스는 시장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원재료인 과일은 기후변화와 질병의 압박을 받고, 농부들은 작물을 변경하고 있다. 또한 완제품인 과일주스는 비만과 충치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도 간주되고 있으며, 청량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이 목구멍 점유율(share of throat)이라 불리는 음료시장에서 과일주스와 경쟁하고 있다.

1.1. 오렌지주스 시장 동향

이미 수십 년 전에 미국, 즉 플로리다는 브라질에게 오렌지주스 최대 생산지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제 브라질은 오렌지 주스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플로리다는 ‘농축액이 아닌’ 신선하게 짜낸 주스를 미국 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두 산지 모두 병해로부터 생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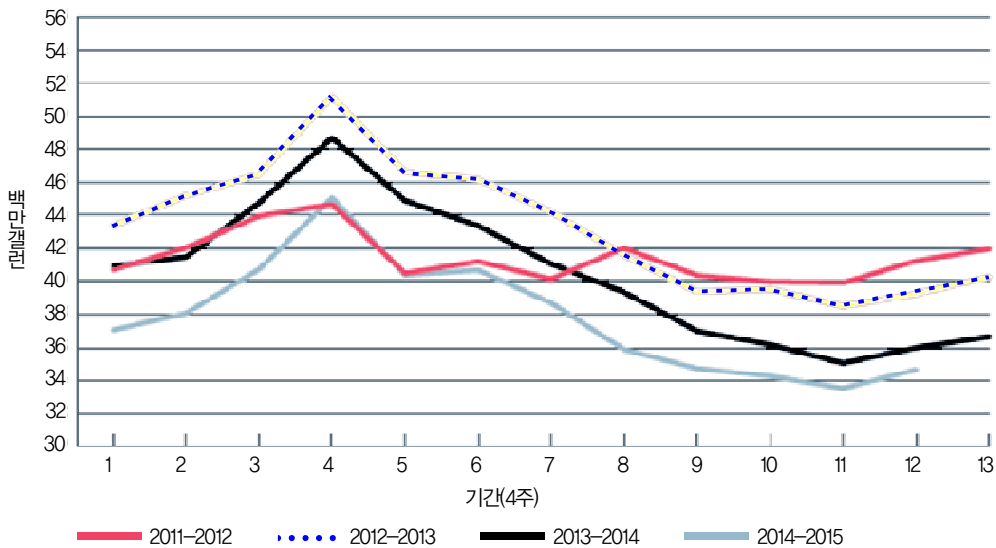
* (yumi.park@kdis.ac.kr). 본고는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간된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보고서를 바탕으로 번역 및 요약 작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귤 농장을 더 남쪽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녹화병, 즉 황용병(Huang Long Bing)은 감귤 농장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플로리다의 경우 2015/16년 오렌지 생산량이 지난 50년 이래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황용병에 대한 빠르고 쉬운 치료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감귤 묘목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 묘목 또한 황용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렌지주스 선물 시장은 허리케인 경고나 수확물 크기가 작은 경우 등의 뉴스에 항상 강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황용병으로 인한 작물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개월간 오렌지 주스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였다. 이는 플로리다와 브라질 모두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여 오렌지 주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브라질의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frozen concentrated orange juice, FCOJ) 재고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줄어들었지만, 이제 오렌지 주스의 공급과 수요는 균형에 이르고 있다. 브라질의 재고 감소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주스의 수요가 매우 낮아 2015년에 그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미국 오렌지주스 소매판매 현황



자료 FDOC, A.C. Nielsen,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4 재인용.

브라질에서 공개된 새로운 전망에 의하면 2016년 중반에는 브라질의 이월된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 재고가 기술적 수준인 30만 톤에 가깝게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2014년 말에 기록된 재고에서 5만 톤이 감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오렌지주스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초과 분량의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결국 오렌지주스의 가격은 현재 약 2배 이상의 가격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파인애플주스 시장 동향

오렌지주스와는 다르게 현재 파인애플주스는 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파인애플주스 주요 생산 국가인 태국의 생산이 2016년 내내 매우 저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파인애플 재배의 순환적 특성, 즉 파인애플 재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이후 농부들의 재배 작물 변경으로 인한 파인애플 공급 감소, 이에 따른 파인애플 가격 재상승, 파인애플 재배 재증가의 순환적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태국은 자연적인 생산량 감소, 극심한 가뭄, 그리고 2015년 말에는 엘니뇨를 포함하는 부정적인 조합들로 치명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 그러나 파인애플주스 가격의 사상 최고치인 1톤당 4,000달러는 지속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2016년에는 파인애플주스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인도네시아의 생산 또한 첫 두 달의 파인애플 과수 생산 부족으로 2014년 시즌의 생산 수준보다 낮다고 보고되었다. 코스타리카 또한 파인애플 과수 생산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림 2 2000년-2015년 태국 파인애플 주스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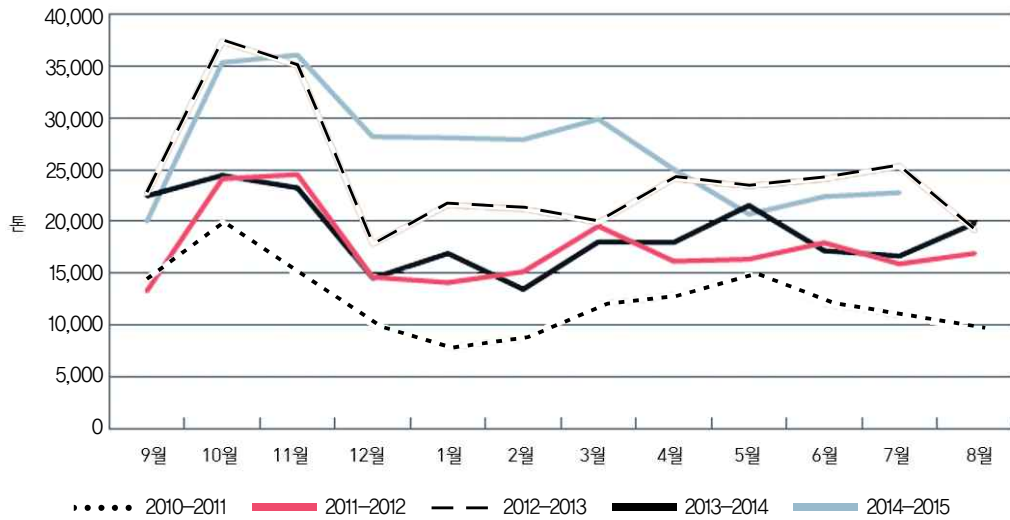


자료 :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5.

1.3. 세계 사과주스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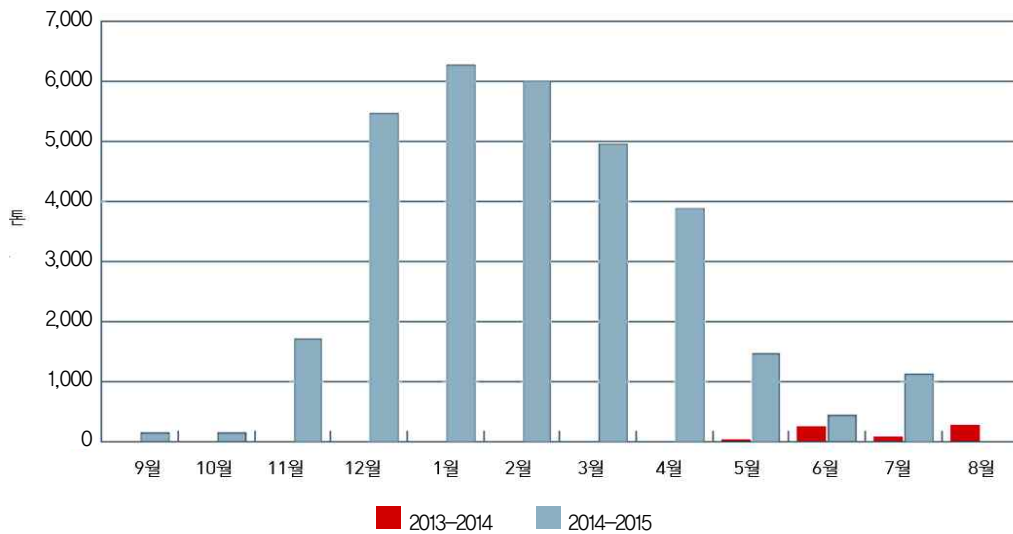
2014년 폴란드의 사과 풍년은 유럽산 사과주스의 가격을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미국 사과주스시장에서 유럽산 사과주스는 중국산 사과주스보다

그림 3 폴란드 농축 사과주스 수출 현황



자료 :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5.

그림 4 폴란드의 대 미국 농축 사과주스 수출 현황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7.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길고 건조한 여름 때문에 폴란드의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EU의 지원을 통해 폴란드 사과 농가들이 냉장보관창고(cold stores)시설을 구비하게 됨에 따라 시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폴란드 사과 농가는 이제 사과를 장기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사과 가격이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유럽은 2015/16년 중국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고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그림 3 참조>.

폴란드와 터키의 예상치 못한 미국 사과주스 시장 진입은 아마 어느 정도 차별주의(chauvinism)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산 식료품에 대하여 좋지 않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적인 공급자들(폴란드 및 터키)의 등장은 일부 미국 구매자들과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잣대로서 유럽산이 중국산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은 미국 바이어 및 소비자가 유럽산을 사용할 가장 충분한 이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이 예전보다 많은 사과 수확량을 기록했고, 그 중 많은 양이 식료품으로 가공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은 중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물론 미국은 주로 천연과일주스(Single Strength Juice)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농축사과주스(Apple Juice Concentrate)를 많이 생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생산한 저렴한 가격의 농축사과주스는 순수과일주스(Pure

그림 5 중국의 대미국 농축사과주스 수출 현황



자료 :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7.

Fruit Juice)에 비해 다른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사과주스 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대유럽 사과농축주스 수출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없는 수준까지로 줄어들었다. 중국 주스가격은 절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기존의 최혜국지위(most favored nation exemption status)를 상실함에 따라 수입 관세가 25.5~30%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에게 남은 단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인데 러시아시장 또한 최근 루블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붕괴하고 있다.

그러나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모든 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냉장 착즙 주스(cold-pressed juice) 고품질의 상품이며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이렇듯 유럽 및 미국시장은 고품질의 제품을 기꺼이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신흥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저농도 음료(low content drinks)에서 고농도 음료(high-content drinks)로 이동하고 있으며, 채소 및 열대주스와 같은 이국적인 음료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과일 주스의 물량 면에서는 순수 주스(pure juice)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단가는 흥미롭게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타 과일 가공품 전망

2.1. 파인애플 캔 시장 동향

파인애플시장에서는 공급부족이 주스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캔 제품가격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요는 여유가 거의 없는 공급량을 넘어서고 있고, 원재료 가격의 놀라울 정도의 상승은 제조원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수요로 인하여 세계의 바이어들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들 또한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

이러한 작물 부족현상으로 3개 주요 캔 제조업체들은 거의 최저수준까지 생산량을 짜내고 있다. 과수의 부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2015년 10월에 파인애플 일반과수(standard fruit) 및 숙성과수(higher level of ripeness)의 가격이 각각 12.70 THB/kg(일반과수), 14.50THB/kg(숙성과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겨울과수가 자라는 동안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태국 파인애플 캔 제조업자들은 2015년 4분기 파인애플 생산량이 40만 톤으로 평균 수준보다 40% 낮았다고 보고했다. 2015년의 태국의 파인애플 총 생산량은 130만~14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해의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적은 양이다.

태국의 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 바이어들은 파인애플 구매를 인도네시아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또한 엘니뇨로 인해 2015년 4분기 수확량이 약 30~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브랜드 바이어들은 인도네시아 캔 생산자에게 발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이다.

파인애플 캔 산업의 또 다른 주요 생산지인 필리핀은 Dole과 Philpack(Del Monte)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자체 브랜드 바이어들에게 판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고유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필리핀 캔 생산자는 운이 좋게도 태풍 코푸에서 벗어났으나 엘니뇨는 피해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Del Monte Pacific은 파인애플 공급 감소로 인해 2016년 회계연도 첫 분기에 1,200만 달러의 손실 발생을 발표했고, Foodnews에 따르면 Dole도 계약을 지키기 위한 숙성 과수를 조달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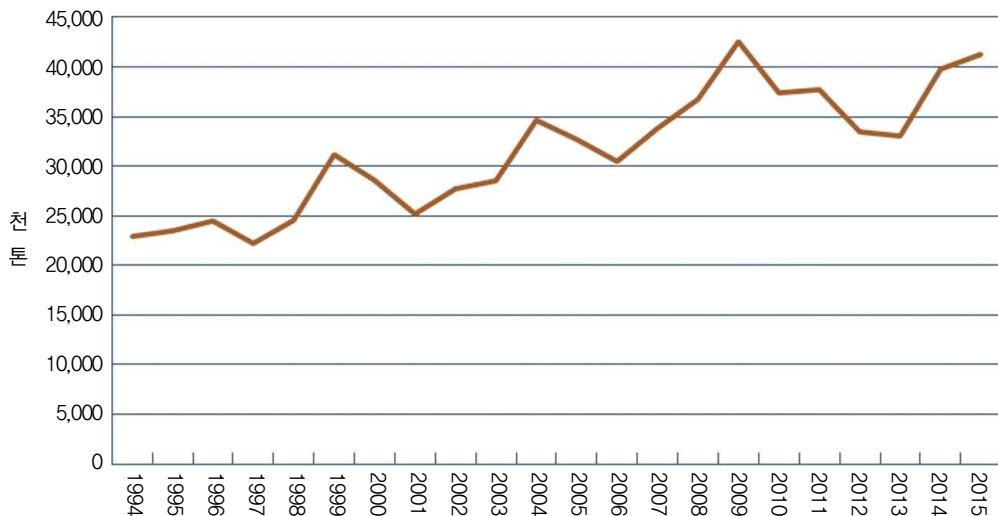
이러한 원재료의 희소성과 기록적인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2015년 첫 반기의 파인애플 수출량은 안정적이었고, 이는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다음해 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 가공용 토마토 시장 동향

2015년 초 토마토가 북반구에서 시작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가공을 위한 토마토 생산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만큼 급증하고 수요를 넘어설 것이라는 공포가 번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전 세계 토마토 생산량은 4,130만 톤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 비해 약 3.1%만 증가하여 관리가 가능한 규모로 보인다. 중국과 이란은 예상 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였고,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은 예상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상 최대 생산량인 1,300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하나의 법칙처럼 토마토의 전 세계적 생산은 부족과 과잉이 몇 년 간격으로 번갈아가며 대체되는 사이클을 따르고 있다.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09년도로 4,250만 톤의 가공용 토마토가 생산 되었다. 3년 만에 생산량이 1,200만 톤 증가했으며 중국은 이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생산자였다<그림 6 참조>.

그림 6 전 세계 가공용 토마토 생산 추이



자료: WPTC Forecast,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78 재인용.

토마토 산업에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해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중간 규모의 생산국이었고, 최대 생산량이 몇 백만 톤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당시 캘리포니아의 생산량은 이미 1,000만 톤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러나 10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의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중국의 빠른 성장은 2009년도에 정점을 찍어서 중국의 생산량은 870만 톤을 넘어섰다. 또한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이 1,000만 톤 이상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급격한 생산 증가는 국제시장의 균형을 잃게 하였고, 높은 재고와 낮은 수요는 이후 3년간 토마토 가격을 하락시켰다. 다행히 2013년에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수확량을 기록함에 따라 마침내 남아있었던 재고를 모두 소진할 수 있었다.

이후 시장 가격은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비록 일부 유럽과 다른 지역에 있는 일부 회사들이 내부 자산 부족이나 일반적인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가격 상승을 통해 가공업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에 충분했다.

2015년의 경우 사실상 미국이 유럽시장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달러의 강세와 유로의 약세로 인해 캘리포니아 토마토 페이스트의 가격은 유럽제품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인해 EU의 토마토 생산량이 증가하여 유럽에서 생산된 토마토 페이스트는 유럽 내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처럼 시장은 2016년까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장 큰 우려는 미국 가공업자들이 내년까지 유지하게 될 재고량이다. 이를 유럽에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들은 토마토 페이스트 가격을 공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힘든 시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세계 유제품 시장 동향

불안정성은 최근 유제품에 관한 이슈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이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의 유제품 원재료 가격의 소용돌이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유제품 산업은 그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6년 및 그 이후 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제품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 중국의 구매로 인한 호황과 뒤이은 하락
- 러시아의 주요 공급국들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전망
- EU 쿼터의 종료와 함께 규제가 풀린 공급자들이 유럽시장에 가져온 결과들
- 향후 20년간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흥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¹⁾

지난 7년간 세계는 금융위기에서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늦췄으며, 급락한 유가는 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말 위기 당시, 중국에서의 강력한 스캔들로 중국 유제품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중국 소비자들이 엄청난 양의 수입 수요를 일으켰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국가의 급증한 수요는 기존 유제품 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농부들은 그들 및 그들이 공급하는 유제품 사업이 성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왔다. 이들을 통해 개선된 효율성은 우유 공급의 과잉을 창출하는 것을 도왔다. 위스콘신에서부터 바르샤바까지, 오클랜드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러한 혁신을 통해 자국의 잉여 생산량을 세계시장으로 내보냈다.

날씨 또한 최근의 생산량 증가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소로 밝혀졌다. 초원의 성장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Partnership)무역 법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15년 말에 결의되어 발효된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좋은 예임.

을 촉진시키는 온화한 기후는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농부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의 엘니노와 같은 기후적 반전은 생산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보다 더 작은 문제 - 예를 들면 2011-12년의 유럽의 기상 악화 - 만으로도 공급과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

현재 유제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직면한 과제는 다른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들로부터 우유의 가치를 되찾고, 그 동안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제품 시장을 조정하는 동력과 그 앞에 놓여있는 기회를 더욱 깊게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3.1. 수요 변화와 양우 전망

지난 몇 년간의 중국의 유제품시장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것은 2008년도의 멜라민 위기였다. 30만 명의 중국 영·유아가 자연산 분유(watered-down milk)를 가장한 사기의 결과로 멜라민에 중독되었다. 중국의 부모들은 당연히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에 등을 돌렸으며 북경 정부는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부분이 뉴질랜드 산인 분유 수입의 엄청난 증가를 예고했다. 그 결과 2014년의 초까지 국제 유제품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중국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들였고 무역업자들이 남아있는 공급자들을 살살이 찾아 헤매도록 했다. 분유(milk powder)의 가격은 지붕을 뚫고 치솟았고 2011년 Fonterra사의 대표 한 명이 “새로운 정상 (New Normal)”이라고 표현했던 기념비적인 수치마저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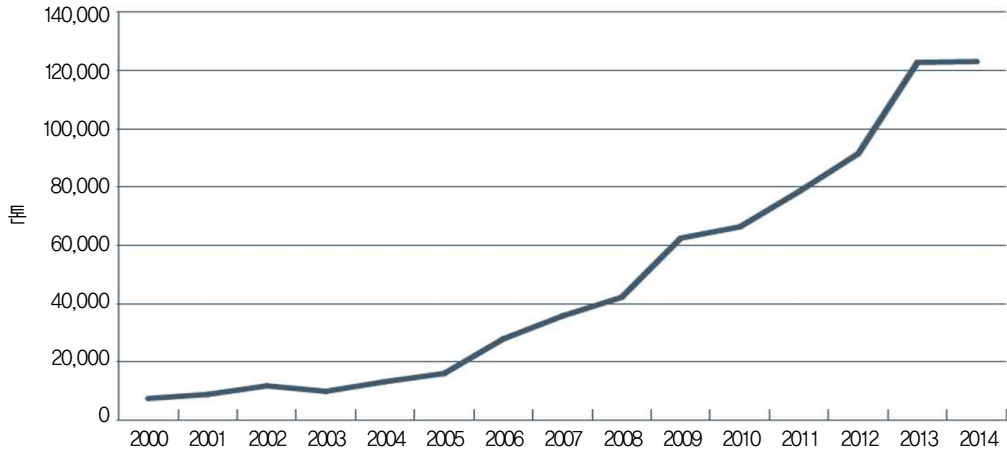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구매가 홍수에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 수준으로 줄어들자, 수출국들은 중국을 대체할만한 시장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세계 우유 생산량이 기록적으로 높아져 유제품 가격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비록 중국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징후가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2015년 말의 유제품 시장 상황이다.

멜라민 위기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유제품 산업은 견고해졌으며 Mungniu(蒙牛) Yili(伊利), Bright(光明)과 같은 주요 회사가 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슈퍼농장(super-farm)들이 농장에서 공장까지의 공급을 보다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변화에 따라 세계 유제품 시장과 중국과의 관계도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국인들이 고가의 서양 치즈, 심지어 원유까지도 수입하고 있으며, 유아용 조제분유의 판매, 수입도 여전히 강세이다. 또한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2016년 말부터 이 시장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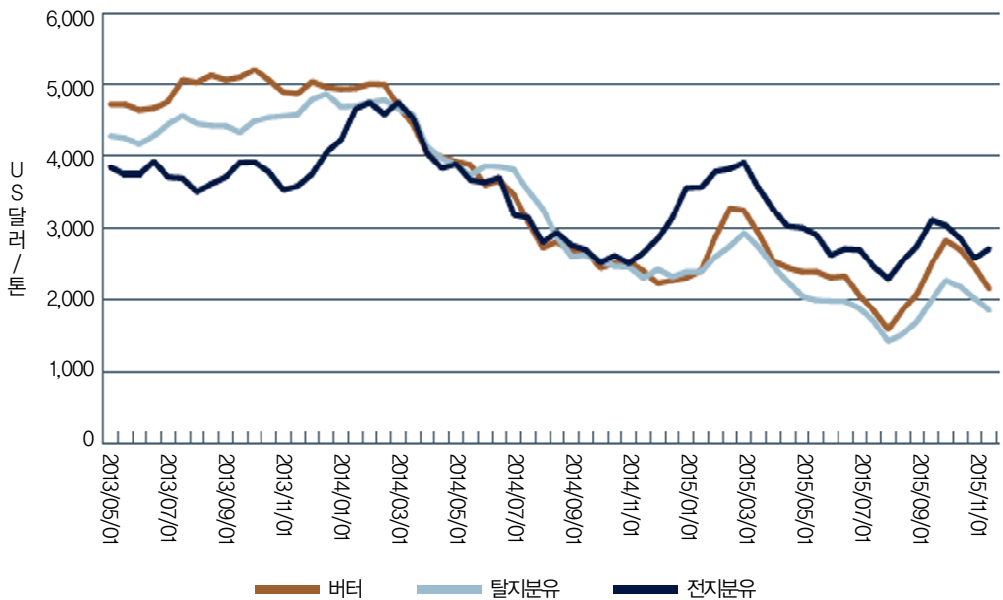
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제품 시장은 성장하겠지만, 거대한 호황기(mega boom years)라고 부를 만한 시기는 이미 지나온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업들은 이제 사하라이남

그림 7 2000-14년 중국의 영아용 조제분유 수입 추이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82.

그림 8 2013-15년 유제품별 가격 변화 추이



주: GDT weighted average prices.
 자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83.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 수요 및 가격 상승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다른 유제품 수출 국가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2. 러시아의 무역 체계와 양우 전망

2015년부터 선진국들의 유제품시장을 휩쓸었던 냉기의 또 다른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역적 위기였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의 크림지역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서의 힘겨루기에 대응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맞대응 전략을 취해 2014년 8월 초부터 서구 국가의 식품 수입을 중단했고 이는 전체적인 농·식품부문에 충격을 가져왔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정세의 전개는 아니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다른 서구 국가들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러시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익숙해져있고, 그들의 수입은 종종 그럴싸한 근거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포괄적인 금수제재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해왔던 것 보다 훨씬 강력했다. 특히 이번 무역금지조치로 인해 유럽 치즈 제조업자들은 2013년에 그 규모가 9억 8,300만 유로에 달했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를 즉시 잃었다. 또한 그 여파로 EU의 우유는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와 버터로 변경하여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나쁜 상황이 더해졌다. 좋은 날씨와 저렴한 사료비로 인해 세계 많은 국가의 우유생산이 호황을 맞았고, 2014/15년을 마지막으로 31년간의 EU의 생산 쿼터가 끝나게 된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볼 때, 유럽 유제품 산업을 불안정 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보다 더 완벽한 결합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유럽 유제품 산업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사실,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유럽의 수출업자가 새로운 시장을 찾도록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장의 개발은 장기적으로는 그 동안 유럽에게 단하나 거대 고객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5년 9월 말 개최된 세계낙농연맹 연차총회(World Dairy Summit)에서 러시아의 유제품에 1년간의 금수조치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명확해졌다.²⁾

2) 가장 최신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금수 조치는 20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러시아 국내에서는 이번 금수조치를 통해 그동안 투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2급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러시아의 유제품 제조업체들이 수입업자와의 경쟁이 줄어들자 새로운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러시아의 소비자 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시장에는 식물성 유지(vegetable oil)가 대부분인 대용품이 점점 더 넘쳐나고 있다.

이번 금수조치와 분쟁이 정리되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유럽의 “편안한 담요”였던 큰 시장은 없을 것이며 러시아는 유럽 유제품 무역을 예전과 같이 지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3. EU의 쿼터제 종료 및 양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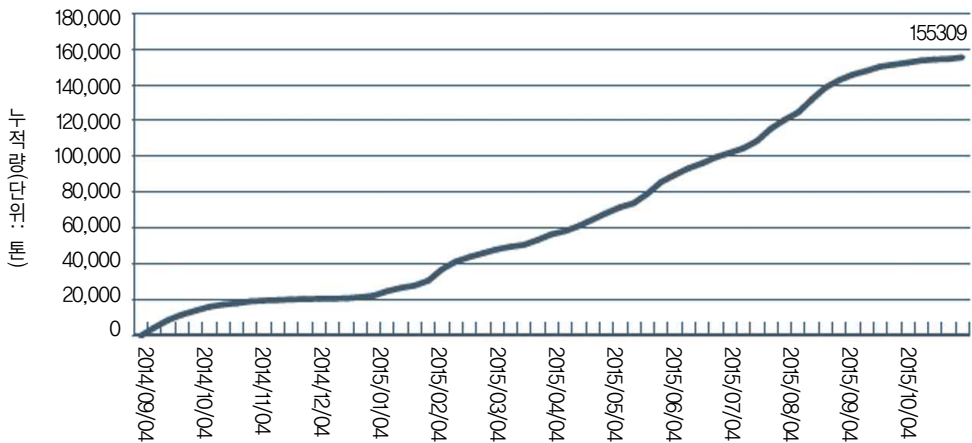
2015년 EU의 낙농업은 쿼터 종료 후에 대한 약속의 구체화에 실패함에 따라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와 같은 수출 중심의 낙농국가들의 경우 그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우유 생산량 제한선이 풀릴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아일랜드는 황금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느꼈다. 주요 가공업체들은 설비와 공장 규모를 늘렸다. 그들의 가축 투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우유 생산업자들 사이에서 매우 높았다. 실제로 2014년에 아일랜드우유위원회(Irish Milk Board)는 그들의 이름을 ‘Ornuu’라고 붙였는데, 이는 게일어로 “하얀 금”이라는 뜻이다.

생산 쿼터제도는 국가의 관대한 지원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버터산 (butter mountain)’이나 ‘우유호수(milk lake)’와 같은 결과를 내놓게 된 유제품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되었다. 점진적으로 제약이 풀리자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다. 쿼터 종료 (2015년 4월1일) 후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주요 생산 과잉 국가들,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가 생산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EU 전체 우유 물량은 엄청나게 치솟았다. 그러나 다른 EU 국가들은 이전 해에 비해 3-4%정도 더 생산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미 언급한 일련의 다른 모든 요소들 - 좋은 날씨, 싼 사료비용, 중국, 러시아의 규제가 모두 함께 세계 우유 가격을 하락시켰다.

결국 2015년에는 EU의 유제품 산업에 새로운 안전망을 제공해야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증가했다. 2015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5억 유로의 긴급 구제 패키지 제공을 발표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유제품 제조업자들의 급여 제공을 위해 사용 되었다. 모순적이게도 이 금액은 쿼터제 마지막 해에 쿼터 초과로 인해 EU 예산에 납부한 인한 벌금보다 보다 높았다.

버터의 경우, 이제 버터산이 어느 정도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EU의 버터 생산은 214만 톤에 이르렀고, 2014년에 비해 2%정도 증가했다. 2014년 후반부터 15만 톤 이상의 버터가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EU의 개별 저장 지원(Private Storage Aid)정책을 통해 무역업자들이 일정시간 동안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9 참조>.

그림 9 2014년 9월 이후 EU에서 개별 저장을 실시한 버터의 양



자료: Dairy Markets/ EU MMO data,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8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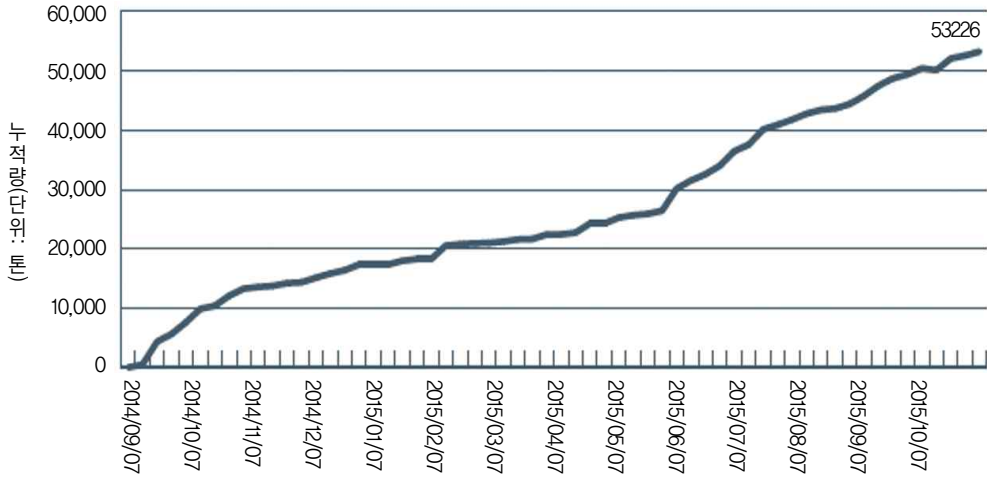
탈지분유의 경우, 이미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탈지분유가 2015년 말에 새로운 고점인 35만 3,000톤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2014년 말의 재고인 15만 8,000톤의 약 2배이며 2013년의 7만 2,000톤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이다.

한편 2015년 7월부터 2만 3,000톤의 탈지분유가 EU의 개입으로 판매되었는데 이는 EU의 안전망 수준인 1,700유로/톤 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이는 2009년 이래 최초로 유제품 판매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치즈를 위한 새로운 개별 저장 지원 정책은 이제야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만 톤의 저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EU의 유제품 제조업자들을 도운 것은 산업 재건 자금과 유럽 낙농제품 수출의 이례적인 성공이었다.

제3국으로의 탈지분유 수출량은 러시아의 금수조치 이전인 2014년 1-8월 기간 동안과 비교했을 때, 선도 시장인 알제리로의 수출이 3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 이상 높았다.

버터의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6% 높았다. 이는 2015년 버터가격이 중력을 거부할

그림 10 2014년 9월 이후 EU에서 개별 저장을 실시한 탈지분유의 양



주: 보관 기간은 210일 미만인 1,936 톤은 10월 25일 부터 365일간의 개별저장 지원을 받음.
 자료: Dairy Markets/MMO data,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p.85 재인용.

정도로 높았고 여전히 높은 가격인 미국과 두 개의 선두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큰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EU의 치즈 수출의 경우 예상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앞에 언급한대로 유럽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큰 의존도 때문이며 이제 무역업자들은 선두 시장인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유제품의 가격은 급락했고 현재의 저조한 가격은 이미 거의 없는 마진을 더 낮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 개선, 효율성 증가 그리고 얼마간의 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쿼터제 폐지를 통해 지역적 생산 패턴이 시장에 반영되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Agribusiness Intelligence의 편집장(Chris Horseman)은 1980년 중반부터 유럽 낙농업의 구조는 화석화되고 있었으며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우유를 만드는 과정이 더욱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념적 부정이 있어왔다고 분석한 것과 같이 유럽 낙농업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상업 낙농이 현실이 되면 유럽지역의 농부들 및 그들이 납품하는 제조업자들과 관련자들의 미래는 더욱 밝아 질 것으로 보인다.

3.4. 전 세계 유제품 시장 전망

사실 현재의 우유 과일 생산은 단지 현재의 문제일 뿐일 수 있는데, 인구 예측에 따르면 30-40년 내로 이 생산량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을 막 넘어섰는데 이는 15년 내에 84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0년까지는 96억까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증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 국가들의 낙농업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최근의 OECD 보고서는 치즈 수요 급증과 선진국들보다는 신흥 국가들의 크고 급속한 수입 수요 증가가 발생할 것을 예측함으로써 이미 그 징후를 예측 했다. 향후 10년간 신흥 국가들에서 3.6%의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반해 선진국에서는 0.4%의 증가만이 예상된다. 특히,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에 대한 세계 수입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평균적으로 매년 2.8%, 4%,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우유 생산은 향후 10년간 매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까지 1년에 1억 7,500만 톤의 우유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성장의 3/4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의 1인당 유제품 소비는 매년 1.4-2.0%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매우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면 2017년부터 공급 부족의 기미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 Rabobank의 컨설턴트(Mark Voorbergen)는 2013년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다. Voorbergen은 세계 무역의 지속적인성장은 주요 수입 국가인 중국과 알제리 때문만이 아닌 50여개의 수입국가 그룹 때문임을 지적했다. 이 국가들은 스스로 유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 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급 위기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계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은 가장 최근의 세계 낙농 현황(World Dairy Situation)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수요량은 2014-2015년의 중국과 러시아의 경기 침체 후, 2016년에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공급은 새로운 균형을 이루고, 2015년에 4%의 무역량 증가와 최초로 7,000만 톤이 넘는 유제품 무역 규모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공급 측면에서 세계적 유제품 시장이 집중적이지 않으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이는 뉴질랜드, 미국, 유럽 일부국가, 그리고 호주 등의 매우 적은 주요 공급자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 다른 영향 요소는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증가이다. 이러한 협정은 갈수록 시장을 세계화시킬 것이고, 적정한 가격 및 혁신적인 유제품을 더 많은 수의 소비자에게 제공할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유제품 제조자들은 외국 수입제품과 가격 면에서 경쟁하기 어려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부터 매년 10만 명 이상의 중국 농부들이 낙농업을 떠나고 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James O'Donnell)는 “분절된 구조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국 농부들은 수입 우유 가격과 경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또한 낙농업 이탈로 인해 최근 일어난 긴급 버터 수입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낙농업에의 이러한 도전 과제는 낙농업의 이익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구축하기 위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 또한 주요한 도전과제로 이미 네덜란드와 같은 크고 집약적인 낙농업 국가의 농부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소로부터 배출되는 가스 및 목초를 유지하기 위한 물에 대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계획(Sustainability initiative)에 동의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는 비용이 들 것이다. 더 비싼 우유가 될수록 유제품 제조 기업들은 다른 단백질과 지방 원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이미 아몬드 우유와 같은 대체 영양원들은 유제품의 뒤를 쫓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도전들이 성공적으로 해결 된다면, 우유는 이전과 같이 어느 정도 과장되기는 했지만 “하얀 빛의 금”의 위치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 2016. Global Agribusiness Annual 2016 Overcoming the Challenges, Maximizing the Opportunities. Informa Agribusiness Intelligence.